

온라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도교육청, 도내 교원에 에듀테크 콘텐츠 정보 제공·수업 활용 사례 공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간 에듀테크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온라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https://je.askedtech.com/home)'를 구축·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되는 이 플랫폼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보급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콘텐츠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서비스 부재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시에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콘텐츠 정보 및 수업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듀테크 콘텐츠 전문성을 가진 9명의 큐레이터 교사들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의 전반적 운영과 정기적으로 에듀테크 활용 콘텐츠 정보를 업로드해 현장 교사들에게 양질의 정

보를 제공한다.

현재 이 플랫폼에는 1,180여개의 에듀테크 콘텐츠 정보가 탑재돼 있으며, 에듀테크 활용 사례 및 새로운 에듀테크 콘텐츠에 대한 큐레이션 정보를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교수학습 플랫폼 및 AI 디지털 교과서와 연동 △미래교육캠퍼스(2023년 완공 예정)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학

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콘텐츠 활용 검증·지원 등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온라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는 에듀테크 콘텐츠 정보의 결정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기존의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에듀테크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수업사례 공유를 통해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태국에서 개최한 글로벌 판로개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 제품의 수출길을 여는 성과를 올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창업지원단, 창업지원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태국 '글로벌 판로개척 프로그램' 통해 수출길 개척

초기·도약기 창업 10개 기업 6건 수출 MOU 체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 교수)이 태국에서 개최한 글로벌 판로개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 제품의 수출길을 여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18일과 19일 태국에서 호남권역 10개의 초기 창업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현지 시장

조사와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호남권역 유일의 창업중심대학인 전북대가 2015년부터 매년 해외 여러 국가를 직접 찾아 지역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태국에서 진행된 바이어 상담회에서는 10개 기업이 각 기업 당 8~12개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했으며, 이를 통해 6건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상담회와 별도로 태국 한인회 및 태국 KOTRA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태국 21Temiral, 아이콘 시애틀 유명 소프웨어 방문을 통해 판로개척 전략도 수립했다.

/김재훈 기자

하림-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글로벌인재 양성 해외연수 '맞손'

도내 초·중생 20명 선발

북유럽 과학 탐방 나서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글로벌 특색을 반영한 교육비전으로 학생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국가적 과학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김정옥 교육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문화혁신을 위한 '지역인재 희망장학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과학·발명 분야에 적성과 관심이 높고 관련 활동 및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의 수·과학·발명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시설 등을 방문하게 된다.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학습과제 등을 부여해 내실있는 탐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도교육청,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장 임용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학교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7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원인사과에서 전북교육청 교장공모제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 중인 심체중앙초와 근산초양중에서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한 학교

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초·중·고·특수학교이다.

올해 9월 1일 기준 교장공모 학교는 초빙형 42개교, 내부형 23개교, 개방형 57개교 등 총 122개교다. 또 내년 3월 1일자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초등 35개교, 중등 28개교로, 이중 교장결원학교(정년퇴직, 중임만료) 3분의 2범위 내에서 지칭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 유형, 심사방법, 응시자격 등을 결정할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2023 VISION EXPO'가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비전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미용건강과 예술제 '뷰티 페스타'.

학생·교직원·주민 '한바탕 놀이'

전주비전대 '2023 비전 엑스포' 막 내리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가 '2023 VISION EXPO 졸업작품전 개막식'에 이어, 지난 27일 화과마다 각기 다른 학습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는 학술제를 비롯해, 미용건강과에서 준비한 뷰티페스타와 해외 유학생 체육대회, 태권도 공연 그리고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비전대동제가 캠퍼스 곳곳을 젊음의 열기로 가득 채우고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 지역주민들까지 따뜻한 관심을 더하면서 한바탕 놀이로 성황을 이뤘다.

전주비전대 운동장과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미용건강과의 학술제 '뷰티 페스타(Beauty Festa)'는 미용건강과의 재학생 및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 그리고 유학생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보탈 뷰티' 시연으로 매혹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였다.

캠퍼스 한편에서는 전주비전대 총학생회가 제47회 비전대동제(비전축제)를 개최하면서 북변가왕, 미니게임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특히 전주비전대

교직원 100여명을 초청해 아진삼겹살집 행사로 이색적인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국제교류원에서는 유학생 600여명을 위한 체육대회를 열어 유학생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들간 이어진 2023 VISION EXPO의 폐막례는 태권도체육학과 의 태권도 퍼포먼스로, 절도있고 멋진 시범공연으로 무대예술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주비전대 우병훈 총장은 "2023 VISION EXPO 졸업작품전을 비롯한 학술발표, 비전대동제 등,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은 학습 중에 어렵게 접했던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기술에 적용해 솔루션을 찾으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취업경쟁력을 높여 미래사이에 우리 지역을 이룰 전문 산업역군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우리학생들을 끊임없는 관심으로 지원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오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교육청, 내달 3일까지... 도내 963개 교육기관·학교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한 실천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학교 963곳에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체제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교육현장의 대응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훈련 기간에는 △비상소집훈련 △상황보고체계 점검훈련 △불시가능 점검훈련 △지진·화재대피훈련 △재난취약분야 토론훈련 △재난대피대체 점검 △사고 수습본부 운영 토론훈련 △안전진화행사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훈련이 펼쳐진다.

특히, 오는 11월 1일에는 '훈련상황 보고회 및 통합연계훈련'을 진행한다.

교육감 주재로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운영되는 사고수습본부를 직접 가동해 재난상황 발생 현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현장연계 토론훈련은 △상황판단 회의 △재난위기 대응단계 검토 △문제점 및 불발사항 검토 △수습부구대책 마련 등으로 이루어지며, 재난 현장과 연계한 실시간 훈련으로 현장감을 더할 전망이다.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도 이 기간 동안 불시 지진·화재대피훈련,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및 소화기 작동법 실습훈련 등 재난·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행사 등을 실시해 내실있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는 전북교육구성원 모두의 안전"이라면서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부설초 마라톤부, 나포심자 들녘 행복달리기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28일 달림이(마라톤부) 학생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겨울철새도래지 금강이 보이는 나포심자들녘에서 가을하늘을 만끽하며 달리기 대회를 실시했다.



올해 9월에 부임한 마라톤부 김신철 교장은 매일 아침 아이들과 같이 뛰며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달리기 실력 향상을 위해 '달림이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황금 들녘과 출렁이는 금강을 바라보며 5km 코스를 달렸다. 금새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숨이 차왔지만 모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김관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